

# “2연패, 자신있어요”

## 소치 선수단 미디어 데이...김연아 “컨디션 좋고 프로그램 익숙”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2연패에 도전하는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지난 두 번의 대회보다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태”라며 현재 컨디션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연아는 15일 서울 공릉동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소치올림픽 빙상 대표 선수단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대회도 2차례나 출전했고, 프로그램에 익숙해질 때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연아는 갑작스러운 오른쪽 부상 탓에 외국 경쟁자들보다 시즌을 늦게 시작했다. 빠르게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2연패 전망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즌 첫 무대인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의 ‘플든 스프린 오브 자그레브’에서 204.49점으로 우승하며 힘차게 새 시즌을 시작했다. 이어 이달 초 고양에서 열린 종합선수권대회에 ‘최종 리허설’을 겸해 출전, 무려 227.86점을 받아 한껏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국내 대회이다 보니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서 공인하는 기록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크로아티아 대회 때보다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

김연아는 “연습에서도 실수 없이 프로그램을 여러 번 소화해 자신감이 있다”면서 “연제나 잘할 수는 없지만 연습에서는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큼 준비가 됐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난도 높은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많이 들은 프리스케이팅 ‘아디오스 노니노’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내가 왜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을까’ 후회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며 웃었다.

김연아는 “많은 분들이 금메달과 2연패를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어떤 결과가든 후회 없이, 만족스럽게 마무리할 것이다”며 “이 경기만 끝나고 나면 선수 생활이

마무리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4년 전 밴쿠버올림픽 때와 다른 점일 것 같다. 그만큼 부담 없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마지막 무대를 한 마디로 표현해 달라는 질문에 난감해 하던 김연아는 “마지막 축제, 즐거운 마무리” 등의 표현을 어렵게 꺼내기도 했다.

한편 대회 후반부에 경기에 출전하는 김연아는 선수단 분단보다 늦게 소치로 떠날 예정이다.

김연아는 “아직 출국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다. 다른 대회들도 대부분 해외에서 치른 만큼 시차에 적응하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연제나 ‘클린 연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다. 실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웃으며 마지막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 “실력 같고 닦아 빛나는 봄 맞겠습니다”



**KIA 새내기들 ‘두근두근’ 생애 첫 캠프**  
신고선수 내야 유망주 김광연·신인 투수 김영광  
오늘부터 전지훈련 돌입...“존재감 보이겠다” 각오

김광연은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과 팀의 리빌딩 분위기 속에 기회를 잡은 행운아다.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극적인 2013년 가을이었고, 행복한 2014년 겨울이다. 운이 좋다고는 하지만 노력이 있었기에 잡을 수 있었던 행운이었다.

김광연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2군 경기를 뛰었다. 수비를 중심으로 경기를 하고 준비했는데 타 이미지가 좋았다. 어려운 공을 몇 차례 운 좋게 잡으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 1군 기회가 왔다. 그리고 스프링 캠프에도 가게 됐다”고 웃었다.

수비를 우선 얘기 하지만 집중력 있는 타격은 김광연의 재발견을 이끌었다. 지난 시즌 8타석 밖에 서지 못했지만 신인다운 집중력 있는 승부로 5개의 안타를 만들어냈다.

프로 데뷔 타석의 기록도 안타다.

김광연은 “타격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비로 보여줘야 할 것 같다. 마무리 캠프에서도 죽어라 수비훈련을 했다. 확실한 장점을 부각 시킨 뒤 점차 내 역할을 키워가야 할 것 같다.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해 캠프를 치르고 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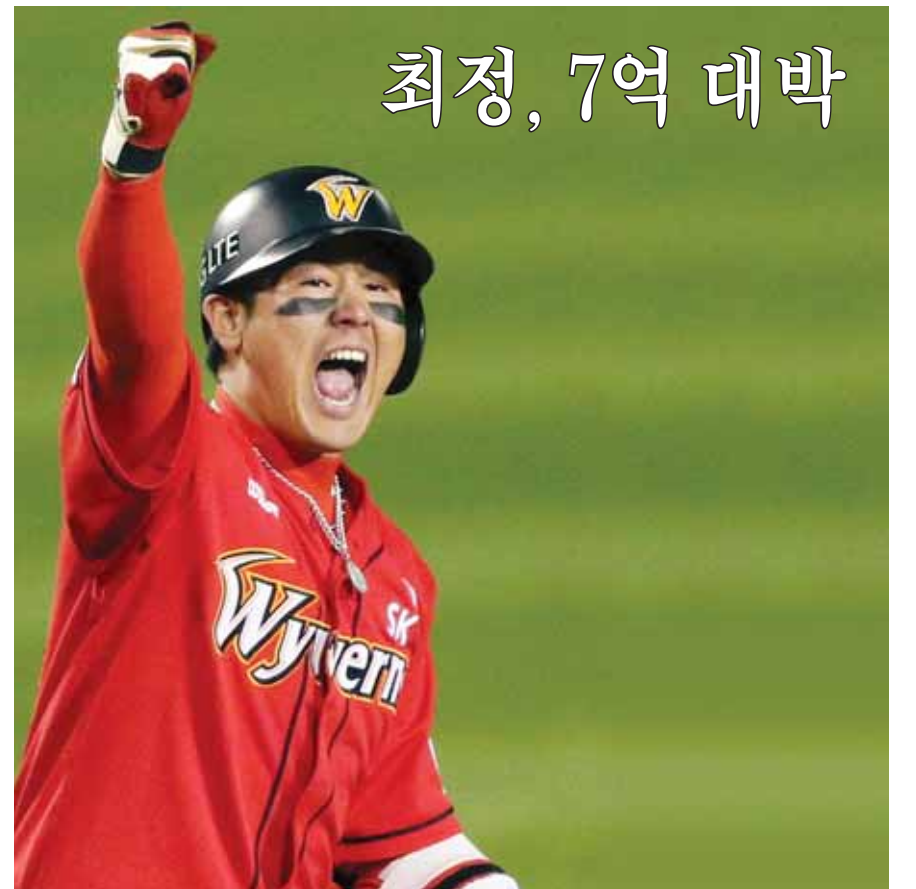
1군과 마무리 캠프 경험이 있는 김광연에 비하면 김영광에게 이번 캠프는 신세계다. 2014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4라운드 KIA의 선택을 받은 김영광은 지난 마무리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다. 쟁쟁한 동기들이 있기에 기대를 하지 않았던 스프링 캠프에서 더 가슴이 뛴다. 캠프 출발 며칠 전부터 짐을 싸고 또 싸다.

김영광은 “꿈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정말 좋았다. 며칠째 짐을 싸고 풀고를 반

복했다. 처음 가는 캠프라 선배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정신이 없었다. 부상 없이 내 페이스대로 가진 것을 보여주고 돌아오는 게 목표다. 캠프 마지막날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표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오자는 마음으로 캠프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영광은 성실함과 구위로 코칭스태프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대진 투수 코치가 “화창시절부터 꾸준하게 피칭을 하면서 준비를 잘한 것 같다”며 기대주로 꼽는 선수 중 하나. 선배들에게도 좋은 공을 가진 후배로 눈길을 끌었다. 문제는 경험이다.

김영광은 “예전부터 경기 출전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피칭을 했었다. 밸런스와 컨트롤은 괜찮은데 위기 상황에서 흥분을 잘하는 편이다. 침착하게 경기 풀어나가는 능력을 배워야 한다. 선배들과 훈련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며 “자신있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멋져서 양현종 선배를 좋아했다. 먼저 선배님께 전화번호를 물어봤었다. 종종 전화를 해서 조언도 구하는데 친절하게 잘해주신다. 함께 훈련을 하게 돼서 설렌다. 열심히 배우고 오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 최정, 7억 대박

## FA 선수 제외 프로야구 역대 최고 연봉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간판 타자 최정(27)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기도 전에 ‘대박’을 쳤다.

SK는 15일 최정과 연봉 7억원에 2014년 재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억 2000만원을 받은 최정의 연봉은 단번에 1억 8000만원 올랐다.

7억원은 역대 프로야구에서 해외에 진출했다가 돌아왔거나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의 사례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액수의 연봉이다. 종전에는 2003년 이승엽(삼성)과 2011년 이대호(롯데)가 나란히 6억 3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주인공이었다.

최정은 또 지난해 정근우(한화 이적)가 받은 5억 5000만원을 뛰어넘어 SK 역대 최고 연봉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정은 2010년부터 4년 연속 20홈런을 넘기고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한 SK의 간판타자다. 지난해에는 120경기에서 타율 0.316을 찍고 28홈런, 83타점, 24도루를 기록해 프로야구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꼽혔다.

3년 연속으로 골든글러브도 수상했다. 최고 스타에 대한 예우와 ‘예비 FA’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어 SK는 최정에게 거액의 연봉을 안겼다.

/연합뉴스

## KIA ‘오키나와 캠프 참관단’ 모집

KIA 타이거즈가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참관단’을 모집한다.  
KIA가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단을 격려하고 연습경기를 관람하기 위한 일본 오키나

와 스프링캠프 팬 투어를 실시한다. 팬 투어는 내달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성인 125만원, 아동(2002년 2월생 이후) 114만원이다.

이번 팬 투어는 SK와이번스 및 한화이글스와의 연습경기 관람과 오키나와 관광, 선수단과의 식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관단에는 스프링캠프 티셔츠와 모자, 사인볼, 참관 증서가 기본품으로 증정된다. 오는 4월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 홈 개막 전 시 스키야 박스 관람 혜택도 주어진다.

참관단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이뤄지며 구단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35명 선착순으로, 신청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만 투어가 진행된다. (접수=자이로항공 안전실 02-497-2626)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맞춤 웨딩의 명소 신양파크호텔

2014년 신년 **감사 웨딩 할인 축제**  
기간 | 2014년 2월~3월(2개월)

**감사할인 특별메뉴 (200명 이상)**

뷔페 ₩30,000원~  
스테이크 ₩35,000원~ (세금별도)

기타혜택: 객실 2실 무료제공, 꽃길 무료제공, 폐백실 무료제공, 얼음조각 무료제공, 음주류 50% 할인, 웨딩캐드 50% 할인

**Shin Yang Park Hotel** 예약문의 062)221-4101~3